

지붕 위를 지나가는 고압선 때문에...

# “비바람 부는 날엔 잠 못 이뤄요”

주택 양옆 전신주 들어서 주민, 안전사고 우려 제기 “민원 넣어도 조치 안해”  
한전 “절차상 문제 없어... 현장 찾아 해결방안 모색”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현모 씨의 주택 지붕 위를 지나가는 고압선.

이태윤기자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거주하고 있는 현모(82)씨는 최근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밤잠을 설치다. 지난해 11월 현씨의 주택 부지 인근 골목에 전신주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고압선이 현씨의 주택 지붕 위를 지나게 됐는데, 이후 비가 오는 날이면 낙뢰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씨는 “지난해 설치된 전신주를 포함해 현재 주택 부지 양쪽에는 총 2기의 전신주가 설치돼 있고 이를 통과하는 고압선이 (주택)지붕 위를 지나고 있다”면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면 전신주에 낙뢰가 떨어지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돼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러한 속사정을 전신주가 설치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 뿐”이라며 “지난해 전신주가 설치될 당시에도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는데, 고압선만이라도 지붕위를 통과하지 않게 조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현씨의 주택 부지 동측과 서측에는 전신주가 각각 설치돼 있었는데, 전신주를 통과하는 고압선은 현씨의 주택 지붕 위를 지나고 있었다. 특히 고압선은 주택 지붕과 높이 3m 가량의 간격 차를 두고 있었는데, 현씨의 말대로 고압선이 훼손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이었다.

이와관련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사는 설치된 전신주와 관련해 안전상의 문제는 없지만 이번주 중 현장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사에 따르면 현씨의 주택 인근 골목에 설치된 전신주는 기존 고성리 소재의 한 사유지에 설치돼 있던 전신주로, 토지주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유지인 마을 골목에 이설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해당 전신주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다른 주택들도 있기 때문에 주민 등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사에 따르면 현씨의 주택 인근 골목에 설치된 전신주는 기존 고성리 소재의 한 사유지에 설치돼 있던 전신주로, 토지주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유지인 마을 골목에 이설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해당 전신주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다른 주택들도 있기 때문에 주민 등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연락두절 속출... 제주 수출기업 '공공'

코로나19 여파로 연락 끊겨 수출 중단·지연 가장 많아

제주에서 식음료를 생산하는 A업체는 지난 1월 중국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무산됐다. 계약을 약속했던 중국인 바이어가 연락을 끊은 것이다.

3월부터 화장품 생산에 나설 예정이던 B업체도 20일 넘게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현지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화장품을 담을 용기 및 튜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 수출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제주기업 수출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48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중국 등 해외 바이어와 연락이 끊기거나 미팅이 취소되면서 약속된 수출이 무산 혹은 지연됐다는 사례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중국 현지 공장 중단에 따른 원부자재 공급 어려움, 상반기 해외 박람회 및 무역사절단 등 행사 취소로 인한 판매 위축과 매출 감소도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경제정상

진흥원은 코트라 중심의 해외 네트워킹을 활용해 해외출장 없이도 바이어를 관리할 수 있는 화상 상담회를 지원하는 한편 오는 4월 싱가포르와 대만 등 동남아 7개국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쇼피(shopee)'에 제주상품전용관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공모를 통해 제주관에 입점·수출기업 15곳을 선정한다.

또한 해외 공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오프라인 광고를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수출상품 유통지원에 따른 현지 물류창고 보관 비용 및 재고품 매입·판매 지원 등 수출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제주도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대정읍 선거구 <7> 더불어민주당 박정규

### “젊은 패기 강점... 위기의 음면 대안 제시”

도농복합... 소득기반 확대 도시재생 연계 구도심 활성화 공영주차장 조성 등 추진

▶출마결심 이유는=평소 법무사 사무 업무를 맡아오면서 다양한 지역주민들을 만나왔다. 또 청년회 활동과 마을 일을 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현안과 주민 편의를 위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읍면지역의 각종 인프라 및 기초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청년이주, 1차 산업의 위기와 고령화에 따른 마을공동체의 활력 저하, 구도심의 슬럼화에 따른 골목상권의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이런 읍면지역의 위기 요인들에 대한 정책 개발과 대안을 제시해 더 나은 대정읍과 더 좋은 제주를 만들어가는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당선되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민생현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대정읍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니만큼 1차 산업과 소상공·자영업의 소득기반이 확대돼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를 위해 '농축산물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의 운영내

▶▶ 박정규 프로필

- ▷생년월일=1975년 11월 6일
- ▷학력=대기고등학교, 제주대학교 졸업
- ▷주요경력=(현)서귀포시 법무사 사무원회 회장, (전)대정읍연합청년회 부회장



박정규 예비후보는 읍면지역의 위기요인들에 대한 정책 개발과 대안을 제시해 더 나은 대정읍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실화를 통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도서지역 농산물 운송비 지원 방안 추진, 제주형 농민수당을 위한 조례제정 지원 및 어민수당 지원 방안 추진, 모습포항 확장을 통한 어업인 소득기반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더불어 소상공·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정읍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구도심 활성화사업, 매일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반드시 이뤄야 할 정책으로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법은=주민들이 생활에 가장 불편을 느끼는 점은 주차공간의 부족이라 생각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및 추가 주차장 부지 확보, 주차단속구간 및 단속시간의 조정 등 다각적인 방법

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 또 대정읍 지역은 청소년과 학생들의 활동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송악도서관 확장, 문화체육복합센터 설치를 통해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

▶예비후보만의 장점은=우선 젊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대정읍 지역의 전임 3선 도의원 이후, 차기 도의원은 지역정치 10년을 내다보며 진취적이고 패기 있는 젊은 청년정치인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도의원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정리=이태윤기자

## 전기차 중장기계획 수립... 올해 8761대 보급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전기차 8761대를 보급하고 충전기 2985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2020~2030)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은 제주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2년 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전기차 관련 사업체

와 종사자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 서비스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관산업 발굴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개 전략·18개 실천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실천과제는 기존정책 개선과제 11개와 전기차 이용 인센티브 상시 발굴, 전기차 충전기 리스사업 도입·운영 검토,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 등 신규과제 7개이다.

제주도는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67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 >>도의원 재·보선선거 브리핑

김대진 “장애인 자립 지원”

서귀포시 동흥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예비후보는 23일 “사회적 약자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사업 좌초된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센터 건립 사업을 반드시 재추진하겠다”며 “장애이들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을 보다 원활하게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태윤기자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그랜드보청기

정지년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전 브랜드 50~60% 대할인!!

삼출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캠페인

1.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손씻기
2.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3.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그랜드보청기는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소

국제보청기 (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심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2층)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요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탱자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